『신앙과 학문』. 17(2). 93-118.

성경에 나타난 체육
- 신체관, 스포츠, 여가관을 중심으로 -

김 옥 태*

논문초록

이 논문은 신·구약 성경과 관련 문헌을 통하여 신체관, 스포츠, 여가관 등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체육의 개념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에서의 신체관은 피조의 영적 존재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된 육을 가진 존재이나 영혼도 소유하고 있다. 육체는 약하지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할 책임도 있다. 일찍이 성경은 오늘날 체육의 개념인 심신일원론적이었다. 둘째, 성경에 나타난 스포츠는, 구약시대에는 주로 활, 칼, 창, 물매 등 전쟁과 관계있는 것과, 무용, 수영 등이 성행하였다. 신약시대에는 바울 서신에 여러 비유로 나타나 있는데, 이로써 스포츠가 부정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성경에서의 안식일은 인간의 일과 탐욕에 대한 규제와 하나님이 보인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여가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축제는 하나님이 만든 일종의 놀이라 할 수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하여 축하와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인간의 문화는 그것을 위축시키고 있다. 결국, 체육이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부정된 적이 많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정한 의미는 긍정적이며 오히려 권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주제어: 신체관, 심신이원론, 심신일원론, 스포츠, 여가관, 안식(일), 축제, 놀이

*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2012년 4월 30일 접수, 6월 9일 최종수정, 6월 11일 게재확정

I. 서언

체육에 대한 개념은 역사와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을 해 왔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신체(몸, 육체)와 정신(마음, 영혼)을 별개로 보는 심신이원론적 사상에 의해 신체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은 신체와 정신은 하나라는 심신일원론적인 사상으로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적이고 정신적인 면까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가와무라(川村英男, 1963, 209; 篠田基行, 1973: 83)에 의하면, '체육이란 무엇인가', 즉 '체육의 의의'란 체육학의 궁극적인 과제이고, 그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과 표리를 함께하고 있다. 이는 체육이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성립되는 인간과학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심신의 개념에 대한 최초의 분리는, B.C. 500년경 신체로부터 영혼을 분리시킨 헤라클리투스로부터 시작되었고, 중세에 있어서는 데카르트에 의해 다시 부활되었다. 근래에는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영향으로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원론적 개념이 팽배했다. 심신의 개념이 일원론이냐 아니면 이원론이냐에 따라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목적이 크게 바뀌게 된다. 특히 신체활동을 주 관심사로 하는 체육에 있어서는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된다(Rappaport, 1975; 나영일, 1983).

체육에 대한 인식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아테네에서는 심신의 조화적 이상에 심미적·종교적 의미가 포함되어 체육·스포츠 활동이 높이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초기 종교에서는 명상의 생활에 가치를 둠으로써 신체활동이 경시되었다. 물론 초기 기독교에서도 로마 말기의 잔인하고 퇴폐적인 스포츠 환경 탓도 있긴 하지만, 심신이원론에 기초한 금욕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체육사적 측면에서 중세 1,000년간의 암흑시대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Zeigler, 1977: 89-90).

그러나 이와 같은 초기 기독교에서의 심신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체육활동을 배척한 것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신·구약 성경에서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즉 바압(Baab, 1964; 박대선역, 1986: 84)에 의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간론적 용어들을 통한 신체관은 헬레니즘의 이원론적인 것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는 일원론적인 것이다[1]. 분석적인 헬레니즘과는 달리 종합적으로 사물을 보는 헤브라이즘의 특징에 따라

1) Wolf(1973; 문희석역, 1991)에 의하면, 갈망하는 인간으로 '네페쉬', 몰락할 인간으로 '바사르', 전권을 부여받은 인간으로 '루아흐', 이성적인 인간으로 '렙(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들은

인간 전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점은 신약성경에서의 사도 바울의 개념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16-17세기 영국 및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칼뱅주의의 흐름을 이어받은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에 있어서 엄격한 도덕, 주일성수, 향락제한 등을 주창하며 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제한하고 부정한 것도 성경에 나타난 뜻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는 과연 체육·스포츠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부분적으로 약간 발표된 바는 있으나, 체육·스포츠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체육·스포츠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차 자료인 신·구약 성경은 최근의 개역개정판을 이용하고, 그 외에 주석서를 비롯한 관련문헌을 통하여 신체관, 스포츠, 그리고 여가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체육의 개념과 성경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체육에 대한 개념은 신체문화나 신체훈련과 같은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에서 20세기 초부터 체육의 초점이 전인 교육으로 옮겨져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으로 정의되고 있다(Williams, 1964: 10; Freeman, 1987: 4; 前川峯雄, 1981: 55). '신체의 교육'에서는 신체가 목적이 되지만 '신체를 통한 교육'에서는 신체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 신체가 수단이든 목적이든 체육에 있어서 신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체육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인간의 구조적 개념을 문제로 하는 영역이 필연적·본질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신체의 문제는 종래 '인간이란 무엇인가'

종합적인 유대주의의 특징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근본 질문에 관계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심신의 관계로서 긴 역사적 배경을 구성하여 왔으며 인간학의 사상과 관계를 갖는다(김옥태, 1993).

놀이와 스포츠는 현대 체육의 중요한 요소와 내용이 되고 있다. 우선 '놀이'는 한자로는 유희(遊戱), 영어로는 플레이(play)이다. '놀이'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인간이 행하는 활동적인 놀이, 아이들이 활발하게 행하는 '운동 놀이'라는 의미로 두려고 한다. 시노하라(篠原助市, 1957; 川村英男, 1988: 116; 김옥태, 2009: 176)는 노동과 유희를 대비하여 유희의 자발성・쾌락성을 노동에 전화시켜 가는 점에서 유희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호이징가(J. Huizinga)의 '호모 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는 인간의 생활과 문화에는 본래적으로 유희의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스포츠(sport)는 체육과 그 개념이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운동경기' 또는 '경쟁이 따르는 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자연발생적인 놀이에 규칙이 만들어지고 경쟁적이 될 때 게임(game)이 되고 스포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유희성・경쟁성・기술성・사회성・신체활동 등을 들고 있다.

여가의 개념은 자유 시간으로서의 여가, 활동으로서의 여가, 생활의 특성으로서의 여가 등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는데(Ryken, 1987: 28-33; 김옥태, 1997: 16-19), 종종 레크리에이션과 혼동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활동으로서의 여가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은 체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체육의 내용에는 체조나 보건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한편, B.C. 1000년경부터 A.D. 2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기록되었고, 저자와 내용과 형식과 부피가 다른 66권의 책들의 묶음인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으로서 A.D. 90년에 현재의 39권으로 확정된 구약과 A.D. 395년에 현재의 27권이 정경(正經)으로서 확정된 신약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편집에서 제외된 문서들을 외경(外經)과 가경(假經)이라고 한다. 성경은 계시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1181).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경에는 체육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우선, 인간(신체)관에 대하여 보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복

음으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제자원①, 1991: 12).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간(신체)관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데, 성경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은 피조된 다른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기(창세기 1: 26) 때문이다. 또 피조된 인간은 육(신체)를 가진 존재이다. 이는 시편 기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드는 존재인 것이다.

다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스포츠에 대하여 보면, 구약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의 역사와 생활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전쟁에 필요한 궁술・검술・창술 등의 군사적인 것과 수영과 무용 등이 성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약성경에는 스포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의 올림피아 경기 등 운동경기로부터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가에 대하여 보면, 무엇보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천지창조의 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안식(휴식)에 대한 모범을 보였고, 안식에 대한 계명으로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일을 하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출애굽기 20: 8-11)을 볼 수 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라기보다 육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성경에는 성회와 절기를 통하여 많은 축하와 축제, 그리고 놀이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여가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서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체육에 대하여 신체관, 스포츠, 그리고 여가관 등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I. 신체관: 피조의 영적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의 신체관의 특징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1. 피조의 신체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으로 규정한다. 즉 6일간의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 인간 창조가 이루어졌으며, 인간 창조 이전의 다른 모든 창조는 단지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는 엄연히 구분되지만, 다른 피조물과도 완전히 구별되는 고유한 지위를 지님을 보여는 것이다(창세기 1:26, 27, 2:7, 21-23).

>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세기 1:26)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은 기독교 교의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는데, 제자원①(1991: 331)에 의하면, 초대 교회 교부들은 '형상'과 '모양'을 별개의 단어로 취급했다. 즉 '형상'(צלם, 첼렘)은 구체적인 닮음으로서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모양'(דמות, 데무트)은 추상적인 유사성으로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으로 보았다. 하지만 형상(image)과 모양(similitude)은 상호 융통성 있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엄밀히 구분할 수 없다. 이는 유사한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서, 인간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하에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이히로트(Eichrodt, 1967: 119)는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과 천연계 가운데 있는 깊은 간격은 인간은 영적이고 인격적이라는 매우 깊은 고유의 어떤 것"으로 "인간의 삶 속에는 엄청난 원동력이 부여되어 이것으로 위대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비록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이러한 자연 질서와의 관계는 구약성경의 주요한 관점의 하나이다.

또 다른 관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의 의지'로 인간이 탁월한 자연속성을 가진 창조의 면류관이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아무 쓸 데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Jacob(1958: 151; 이경우, 1984)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구약성경의 최초의 확정과 그리고 기타 강조점은, 인간은 피조물이고 또한 모든 피조물의 한계점들

과 나약함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조의 인간은 육(肉)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병도 들고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육이므로 약하며, 하나님은 인간이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하고 무력함을 기억하고 자비로써 사하여준다(시편 78:38-39). 영(靈)인 하나님과 육을 쓴 인간은 대조적이다(이사야 31:3).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며, 모든 육체는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과 같아서 사막의 열풍이 그 위에 불 때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분쇄해 버린다.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또 창세기 2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다. 따라서 시편 49편 12절에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 3장 18절에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20절에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라고 되어 있다.

바압(Baab, 1964; 박대선역, 1986: 76-79, 102)에 의하면, 만일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낫다면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은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이라는 것이다. 다른 피조물과 같이 인간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운명을 갖고 있고, 하루 사이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볼 때에 인간은 특수한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본질 가운데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데 그것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다(김옥태, 1993).

결국, 김호환(1992: 6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하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졌다는 또 다른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즉 피조의 인간은 그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된 존재라는 점과, 먼지로부터 출발하여 권위와 자격을 소지한 생령이 된 인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본래의 것이 아닌 신의 은총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다.

2. 영적 인간

성경은 인간의 구조에 대해 논리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상태를 강조한다. 인간은 육(body)과 혼(soul)과 영(spirit)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삼분설이 있고, 물질적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 요소인 영 혹은 혼으로 구분된 두 가지 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이분설이 있는데, 대체로 이분설이 보다 합리적이라 보고 있다(제자원①, 1991: 161).

영혼이 없는 인간이 없는 것과 같이 육체를 상실한 인간도 인간이 아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범죄로 인하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이다(창세기 3:3, 19). 그러나 이 육체도 영혼과 같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것이므로 영지주의자[2]나 플라톤과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 못된 관이라 할 수 있다(제자원①, 1991: 163).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특히 인간의 영혼과 관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창세기 2:7; 야고보 3:9). 이러한 점은 양자 간에 다른 점이지만 인간이 영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이며,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점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징을 보여준다(제자원①, 1991: 164).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는 필요하며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신체를 보살피는 것을 금지한 곳은 찾을 수 없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한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운동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이다. 때때로 육체를 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합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

2) 영지주의(Gnostic)는 기독교형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지중해 세계를 중심으로 고대 말기의 사상계를 널리 지배한 혼합적 종교사상. 세계는 그 창조 자체가 악이며, 창조에 의하여 근원에 대한 결정적인 이원성이 성립되고, 그 이원성은 단순한 내면적인 지(知)로는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강하며, 따라서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그 교의의 기본이 생기게 된다(편집부편, 1989: 22).

육체를 쳐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의 육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오직 성령(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힘입어 통제할 수 있다. 성령은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도와준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식물(食物)에 관하여 이야기 하며, 먹고 마시는 일에 그리스도인은 ‘몸은 주(主)를 위한다’는 것을 실증하여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고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하고, 음식은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족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지어 부부간의 합법적인 성행위도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서 괄목할 만한 것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믿어왔다. 일반적으로 육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들지 않고 아무런 영적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주님은 몸을 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쓸모없다고 경시해 오던 몸, 즉 육체를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워치만 니(Watchman Nee, 1968; 정동섭역, 1993: 221-222)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육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영혼에만 적용시키고 육체에는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수 자신이 육체의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이러한 경험을 가진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 바, 이들의 태도는 불신을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는 몸을 위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음행을 각별히 피할 것을 강조한 이유는, 음행 이외의 죄는 모두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죄

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 19-20)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며,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인 되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음란을 위한 처소로 사용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IV. 체육 · 스포츠와 그 정황

구약성경에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스포츠—주로 전쟁을 위한 것이나 수영이나 무용 등의 초보적인 것이지만—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 가운데 있으며, 특히 바울서신에 스포츠에 대한 비유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해 고찰해본다.

1. 구약성경에서의 체육 · 스포츠

고대 이스라엘의 신정 역사에 있어서 교육은 종교적 이상과 더불어 발달했다. 초기에는 그들 최고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고유의 희생과 규례를 지키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일찍이 신명기 6장 1-2절, 5-7절에 그 명령이 나타나 있다(김옥태, 1993).

히브리인들은 교육을 통하여 강력한 국가 정신을 계발시키고자 하였다. 애급에서의 노예생활 중 느슨해진 종족생활을 한 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민족적 동질성

을 회복하였다. 또한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그에 따른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호와에 대한 관념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개인적인 정당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종교적 이상은 시민적 협력과 조화를 증진하는 중요한 뼈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상은 하나의 민족을 영속화하려는 갈망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이상은 보편적인 숙명의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종교적·사회적 이상은 그들 교육제도의 초석이 되었다(Van Dalen & Bennett, 1971: 25-26).

히브리인들은 종교적 이상의 구현과 민족본질의 보존을 위하여 몇 가지 체육 목적을 설정하였다. 그것은 주로 군사적인 것이었지만 여호와를 숭배하는 무용과 위생학의 실천 등도 있었다. 그들 문화에서의 체육·스포츠는 종교적·시민적 이상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일부 신체활동은 레크리에이션적이었던 것 같다. 군사훈련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갈림길에 위치해 있고, 종종 군사적 공격을 당하던 당시의 민족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한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이나 전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정신을 발달시키고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단순히 군사적 목적으로만 교육을 제한하지 않았다(김옥태, 1993).

초기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나 로마처럼 화려한 경기는 없었지만 종교적 축일이나 사교적인 기회에 개인 대항으로 힘과 기술을 겨루었고 춤(무용)을 추었다. 성전(temple)은 마치 운동경기가 아테네인들을 단결시켰듯이 유대인들을 일치시키는 힘이 되었다. 종교적 대축제는 가장 감동적인 교육적 작용이었다. 무용은 종교의식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성전의 발코니는 무용을 위한 무대로 이용되었다(Van Dalen & Bennett, 1971: 28).

군사교육은 주로 활과 화살, 칼, 방패, 창, 물매(sling) 등을 사용하는 훈련이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는 오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완숙한 기량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즉 "내가 과녁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사무엘상 20:20),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과녁으로 삼으심이여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예레미야애가 3:12-13),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역대상 12:2),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사사기 20:16).

이와 같이 히브리인의 궁수(弓手)의 능력은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용맹한 전사(戰士)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굿모닝성경편찬위원회(2011: 1145-1146)에 의하면, 히브리민족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와 요단강 동쪽에 살던 지파에 활을 잘 쏘는 명수들이

많았으며, 주변 국가들은 군대 안에 활 쏘는 부대를 따로 두고 있다. 활은 탄력 있는 단단한 나무, 뿔 또는 뼈, 그리고 놋(욥기 20:24; 시편 18:34) 등으로 만들었으며, 화살은 갈대나 가벼운 나무 끝에 쇠, 돌 또는 뼛조각을 붙여서 만들었다. 불화살(시편 7:13; 에베소서 6:16)이나 독화살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매는 주로 양가죽을 엮어서 만든 것으로, 구약시대에 사내아이들의 놀이 도구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떼의 통제, 야수의 방어, 전쟁장비 등으로 이용되었다(제자원⑤, 1993: 278). 물매와 돌은 사무엘상 17장 40절과 스가랴 9장 15절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소년 다윗이 물매를 사용하여 거대한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명중시켜 거꾸러뜨린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랍비 아키바(Rabbi Akiba; Van Dalen & Bennett, 1971: 29)에 의하면, 수영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3대 기본 교과 중 하나였다. 수영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 진가를 발휘하였는데, 이를테면 그는 요단강을 헤엄쳐 건넘으로써 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폄 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는 구절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이 오늘날의 평영(breast stroke)과 같은 영법으로 헤엄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은 영적인 감정을 전달하고 시민의 충성을 강화하는 한 방법이었고 더욱 신성한 의식의 율동적인 모형이었다. 무용의 목적은 미적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기보다 종교적 감동에 힘찬 표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민족정신에 결합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단결심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종교무용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유대민족의 장엄하고 환상적인 영혼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노래로 찬양하는 것처럼 무용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남자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즐거운 춤에 참여했다.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민수기 10:35; 김옥태, 1993). 그리고 시편 149편 3절에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 시편 150편 4절에서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도록 권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은 당시 다른 민족과 같이 추수의 풍요로움이나 전쟁의 승리를 춤으로 축하하였다. 그들의 무용 형태는 근본적으로 단순하였고 자연적인 기쁨의 표현이었다.

2. 신약성경에서의 체육 · 스포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더 다음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의 지배하에 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대인 중에도 그리스풍 문화가 보급되고, 기원전 168년 시리아왕은 유대교를 금하고 유대교도에 탄압을 가했다. 이에 유대교도는 마카비가의 지도하에 독립전쟁을 일으켜 기원전 142년에 독립을 달성하여 하스몬 왕조를 시작했다. 그러나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거느리는 군대에 정복되고 유대인 땅의 대부분은 이윽고 로마의 속주가 되었던 것이다(小倉芳彦外 2人, 1996: 64-65).

알렉산더 대왕 이후 그리스 운동경기의 전통은 그리스 문명과 함께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지금의 중동 모든 지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나의 예로서 마카비하 4장 9절(Castel, 1992: 253)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도 헬라식 운동장이 있었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 즉 운동하는 장소들이 그리스를 모델로 하여 세워졌고, 유대인 청년들은 올림피아경기[3]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도 받은 것 같다(Van Dalen & Bennett, 1971: 27-28).

그런데, 로마의 체육 목적과 그리스의 체육 목적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즉 그리스인에게 있어서 경기대회는 누구나 참가하여 힘을 겨루고 싶어 하는 대중 집회로서, 그들은 자신의 체력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경기대회를 단지 관람자로서 즐기는 모임으로만 생각했다. 또한 로마인들은 체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경기와 축제를 장려했다(Van Dalen & Bennett, 1971: 76).

리비(Livy; Gradiner, 1910: 164; Van Dalen & Bennett, 1971: 81-82)에 의하면, 그리스의 운동경기가 로마에서 처음 열린 것은 기원전 186년이었으나, 로마 시민들은 그 해 서커스에 나온 아프리카 표범과 사자를 보고 더욱 즐거워하였던 것이다. 그리스의 프로그램 가운데 로마인들이 가장 따분해 하는 것은 달리기, 뛰기, 그리고 던지기였다. 그러나 레슬링, 판크라티온[4], 그리고 복싱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나타내었다.

---

3) 올림피아경기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B.C. 776년 이후 4년마다 제우스를 주신으로 하여 개최된 제전경기이다(今村 · 宮畑, 1976: 199).

4) 판크라티온(Pankration)은 그리스어 모든(Pan)과 힘(Kratos)의 합성어. 고대 그리스의 경기종목으로

로마의 정치가들은 그리스 경기대회를 모방하는 트로이 경기축제를 개최하고 그 참가를 신성시했다. 기원 60년에는 네로가 올림픽대회를 연장시켜 네로 경기대회(Neronian games)를 주최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 또 네로는 67년 제211회 대회의 전차경기나 음악경기에 참가하고 아첨하는 관리들에 의해 우승자가 된다. 그것은 부흥하기 시작한 올림픽의 파멸적 오점이 되었지만, 기분이 좋아진 네로는 로마에 시민을 위한 경기장 건설에 힘썼다. 그러나 기독교도들은 인간 대 맹수, 인간 대 인간 등의 피비린내 나는 검투사시합과 같은 구경거리에 대해 혐오하게 되고, 중세 마지막까지 스포츠를 죄악으로 규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松浪健四郎, 1991: 148-152).

시대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신약시대이지만 사실 신약성경에는 체육·스포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러나 바울서신에 나타난 스포츠로써의 여러 비유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다. 조클(Jokl; 1977: 56)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스포츠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졌음이 나타난다. 그는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통하여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운동경기를 관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운동에 깊이 빠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쓴 서신에서 스포츠경기에 대한 많은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는 영혼이 스포츠선수와 같이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약성경 중 그가 쓴 서신에서 체육·스포츠를 비유로 들고 있는 몇 개의 구절들을 들어본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자격을 스포츠 경기를 비유로 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776년부터 시작되어 4년마다 열리던 올림피아드 경기를 가리키는 것이며, '법'은 올림피아드 경기의 세부적인 규칙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10개월 이상 연습할 것을 서약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경기에 앞서 이와 같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올림피아드 경기에 참가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면류관'은 올림피아드 경기에서 우승하는 자에게 수여되던 월계관을 가리키는 것이다(제자원편⑮, 1993: 1132).

서 레슬링과 복싱을 결합한 경기(今村·宮畑, 1976: 1237)

>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고린도전서 9:24-26)

위 구절은 사도 바울이 자유를 절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임을 주지시키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스포츠경기를 예로 들어 말하고 있다. 즉 당시 그리스·로마 사회에서는 스포츠경기가 사회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익숙하고 고린도에서 2년마다 개최된 이스티미아(Isthemia)경기[5]를 예로 들어, 모든 경기자가 각 종목에서 단 한 번의 영광의 승리를 얻기 위해 부단한 연습과 극기의 훈련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마치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선수와 같이 전진하는 성도들 역시 철저한 극기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의 '향방 없는 것 같이 … 허공을 치는 것 같이'에서는 두 종류의 운동 경기, 즉 당시 주요 종목인 경주 와 권투 선수의 행동을 통하여 그가 전하려고 하는 요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제자원편⑮, 1993: 164).

디모데 전서 4장 7-8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김나조(*γυμνάζω*)'로서 운동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옷을 벗고 연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또 '육체의 연단'은 운동경기를 위해서든 건강관리를 위해서든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제자원편⑮, 1993: 1066), 이는 오늘날의 체육·스포츠에 있어서 트레이닝이나 연습과 같은 것으로서 그에 대한 효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씨름'은 헬라어 '팔레(*πάλη*)'로서 '던지다', '흔들다'를 의미하

---

5) 이스티미아 경기는 고대 그리스에서의 4대 제전경기의 하나로서 포세이돈을 주신으로 고린도의 이스트모스에서 개최되었다. 기원전 589년 이후 올림피아드 2, 4년째에 개최되도록 되었다(今村·宮畑, 1976; 78).

는 '팔로(πάλλω)'에서 나온 옛 단어로서 두 사람이 맞붙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던져 내리 누르는 경기를 말한다(제자원편⑮, 1993: 709). 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전투의 비유로서 당시 유행하던 스포츠경기 가운데 레슬링이나 판크라티온 등을 들고 있는 것이다.

V. 여가관: 안식(일)과 놀이와 축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가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의 율법적인 계명으로서의 안식일(Sabbath),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모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가의 주요 내용인 축제와 놀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안식일과 여가

기독교에서의 '안식일'이란 히브리어로 '쉬다' '안정하다'라는 뜻의 샤바트(שַׁבָּת; 이성호, 1989: 1153)나 '평안'이나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므누하(מְנוּחָה; 고신석, 2000: 6)라 하는데, 이 기원은 창세기 제1장의 천지창조의 과정 가운데 6일 동안에 우주창조를 끝마치고 제7칠일에는 쉰 데서 비롯되고 있다.

안식일이 이스라엘의 오래된 제도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고, 출애굽기 20장 1-17절과 신명기 5장 6-21절의 두 군데서 10계명으로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책(출애굽기 23:12)과 제의적 10계(출애굽기 34:21)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안식일의 역사적 의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8-11절과 신명기 5장 12-16절일 것이다.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애굽기 20:8-11)

여기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하루 동안 쉰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출애굽기 16:23; 창세기 2:3). 더욱이 중요한 것은 '힘써'라는 단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에 대한 것과 같이 여가에서도 여가 자체에만 국한시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에 몰두하였듯이 자기의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 충실해야 하고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라야 비로소 여가가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로 시작 되고 뒤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8-11절에서 나오는 계명과는 약간 다르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14절)은 동일하지만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15절)는 다른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시키지만 여기서는 애급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시켜 말한다. 그러나 안식일의 근본적 변화 혹은 변질을 뜻하지는 않는다(제자원③, 1991: 539).

이 외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제정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의 관계인 바, 출애굽기 31장 12-17절에 기록되어 있다. 안식일을 계약의 징표로 보는 이 사상은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도 나타나는 사상으로서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갱신 때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식일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은 변천이 있었다. 처음에는 터부와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되었으나 보다 오래된 단계에서는 월삭과 축제 등과 관계있었으며(이사야 1:13, 호세아 2:11, 열왕기하 4:23), 아모스 8장 5절에서는 안식일이 곡물만 팔지 못하는 날로만 기록되어 있다. 또 열왕기하 4장 23절과 11장 5-8절에는 안식일에 모든 노동이 금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행도 할 수 있으며, 호위병들의 근무교대가 있기도 했다(佐藤敏夫, 1988: 119-121).

위에서 살펴본 것은 대체로 율법적인 계명으로서의 안식일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강제나 의무가 아닌 자유와 만족이라는 여가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진정한 여가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3절에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지은 후 일곱째 날 안식하였다고 하나님 스스로 안식에 대해 모범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세기 2:2-3)

이와 같이 창세기에 나타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마친 후 안식하였다는 말로 시작된다. 매일 매일 창조의 일을 한 후, 하루를 안식함으로 대 역사를 끝마쳤다. 천지창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후 하루 종일 안식한 것이다.

라이큰(Ryken, 1987: 182-183)은 "안식을 위해 한 날을 따로 정한 신비로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창세기는 단순히 일로부터 정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 속성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기 때문에 피로를 느낄 리 없고 인간과 같은 휴식이 필요 없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안식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전인간이 효율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박희석, 2002: 54-59; 김옥태, 2002).

사토(佐藤敏夫, 1988: 122-123)에 의하면, 하나님이 7일째 쉬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에 있어서도 일을 쉬어야만 하는 특별한 날로서 '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날인 것이다. 계명 아래 있는 인간의 역사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인간에게 허락된 축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인간에게 부여된 과제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는 인간에게 준 기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괴로움과 노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며, 인간에게 준 자유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인간에게 부과된 의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이는 휴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의 안식일은 모든 일을 중지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하며, 향연과 축제가 있는 특별한 날이다(Dawn, 1989; Child, 1976: 290).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초대교회부터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수가 부활한 1주일의 첫날(일요일), 즉 '주일(主日)'을 새 안식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일과 탐욕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여가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라이큰(1987: 183-184; 김옥태, 2002)에 의하면, 창조 후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안식이 허송(emptiness)이나 나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 안식은 기쁨과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특히 자연, 예술 그리고 미에 대한 정관(contemplation)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완성한 후,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고 하였다. 이것은 물론 여가의 필요 영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여가에 대한 관조적이고 심미적인 면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과학기술의 시대에서도 여가는 사람들이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새롭게 되는 최고의 방법으로 남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2. 축제와 놀이

여가에 대한 주제를 강조해주는 하나의 성경적 기초는 축제와 놀이이다. 축제와 놀이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토(1988: 93-96)에 의하면, 첫째, 축제는 놀이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행위이다. 둘째, 축제와 놀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일시적 정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셋째, 축제와 놀이는 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다. 넷째, 축제는 놀이와 마찬가지로 '열광과 도취', '고양감과 긴장', 그리고 '환희와 마음의 안정' 등의 감정을 수반한다. 다섯째, 축제와 놀이는 허구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종교적인 축제를 보면,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매년 6회의 종교적 행사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행사들을 '성회'와 '절기'라고 불렀는데, 이때는 노동이 금지되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유대의 종교적인 축제가 잘 설명되어 있다. 즉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던 사람들이 율법을 읽고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은 칠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 것을 명한 율법의 기록을 발견하였고(14절), 그들은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지으라(15절)는 명령도 알게 되었다.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고, 그 결과 큰 즐거움이 있었으며, 칠일 동안 절기를 지켰던 것이다(17, 18절).

라이큰(1987: 195-196)에 의하면, 이러한 것이 바로 여가라는 것이다. 백성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여러 가족과 함께 캠프를 했고, 거기에는 당연히 사회적인 교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유대 전통으로 보면 초막절[6] 동안 무성한 나뭇가지로 만든 지붕은 밤

하늘에 별을 볼 수 있는 틈이 많은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느헤미야 9:6)는 에스라의 기도가 주목된다.

구약성경에서 또 다른 축제는 부림절을 들 수 있다. 부림절의 기원은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을 구한 에스더의 영웅적인 행위에서 시작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대적을 방어하던 날에 일을 쉬었고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에스더 9: 17). 그 후 유대 역사에서 그날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는(에스더 9: 19) 명절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약성경에서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여가는 신약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였다. 그 결혼식은 가장 훌륭한 의식에 따라 행해졌는데, 증거는 그 이야기에서 잘 묘사되고 있는 정결의식을 위한 큰 항아리이다. 예수는 그 잔치가 계속되도록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레위스(Lewis, 1967: 15; Ryken, 1987: 197)에 의하면, 갈릴리 가나에서의 기적은 순전히 감각적인 즐거움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접대와 같은 오락문화의 사용이 인정된 것이다. 또 예수의 공생애 기간을 살펴보면, 예수는 식사나 파티 등에 참석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비난하던 자들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러한 축하와 축제에 대한 성경에서의 인정이 여가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피퍼(Pieper, 1964: 44-46; Ryken, 1987: 197-198)에 의하면, 여가의 핵심은 축하와 연회이다. 그는 여가의 정신은 축하에 있다고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 된 축하의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축제나 결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예배의 의미가 결핍된 축제는 공허함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이 보다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축일(주일)에 대해 칼 바르트(Karl Barth; 佐藤敏夫, 1988: 107-108)의 견해가 주목된다. 즉 바르트는 인간은 이날(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축하와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 축하, 기쁨, 자유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축하, 기쁨, 자유로부터 어떠한 구실을 대고 빠져나가

---

6) 이스라엘의 3대 절기(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중의 하나이다. 일명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과 과실을 거둔 후 지키는 민족 최대의 축제였다(스가랴 14: 16-18; 제자원②, 1991: 793).

는 일은 하나님께 불복종의 행위라고 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자유'와 '기쁨'이 주일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자유와 기쁨은 축제의 일반적 특징이기도 하다. 사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축제와 놀이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의 공통점 가운데 축제든 놀이든 하나의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의에서의 자유는 엄숙과 장중과 긴장 속에서의 자유이지 편안함이나 여유로서의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편안함이나 여유로서의 자유는 놀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축제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축제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인 '기쁨'에 대해 보면, 피퍼(1973; 佐藤敏夫, 1988: 109-111)는 기쁨이란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2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축제는 기쁨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축제적인 기쁨의 근저에는 세계 전체에 대한 보편적인 긍정 내지는 동의 또는 찬미가 있다. 즉 사람은 세계 전체가 선한 것과 사랑 받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면 사랑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 창조주에 대한 찬미만큼 근본적인 세계에 대한 긍정, 세계에 대한 동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잠언 8장 30-31절에 놀이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나는 붙어 다니며 조수 노릇을 했다.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게 해드렸다.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즐거워 그가 만드신 땅 위에서 뛰놀았다"(공동번역).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기뻐하고 놀이를 하는 것은 지혜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또 시편 104편 26절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자연에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 중 하나가 놀이와 스포츠인데, 바다 속에서 즐겁게 뛰어놀도록 고래(리워야단, לויתן; 제자원편⑧, 1993: 1155)를 만들었다는 것이다(Ryken, 1987: 199). 여기서도 여가의 중요한 일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태여 호이징하(Huizinga)의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7]을 들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놀이 속에 빠지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가와 축제가 교차되는 점에 대해 많이 다루었던 콕스(Cox, 1969; Ryken,

7)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인 J. Huizinga(1872~1945)가 65세 때인 1938년에 발표한 저서 <호모 루덴스-유희에서의 문화의 기원>에서 제창한 개념으로 인간의 본질을 유희라는 점에서 파악하는 인간관이다.

1987: 198)에 의하면, 축제는 하나의 놀이 형태이며, 인간이 어떤 사건 또는 현재의 순전한 미덕을 확인하거나, 신과 영웅을 기념하는 동안 일상적인 일을 옆으로 제쳐놓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활동이며, 인간은 축제의 존재이지만, 현대의 문화적인 힘은 인간의 축하하는 능력을 위축시켜왔다. 즉 서구문화의 발달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여가의 축제적인 요소들을 보존하는데 실패해 왔다는 것이다.

Ⅵ.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체육의 개념에 대해 신·구약 성경과 주석 등의 관련 문헌을 통하여, 신체관, 스포츠 그리고 여가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신체관은 간단히 피조의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흙으로써 창조된 육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달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영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육체도 결코 무시하거나 천시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위하고 만든 육체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일찍이 성경은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하던 심신이원론이 아니라 오늘날 체육의 개념인 심신일원론적인 신체관을 피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성경에 나타난 체육·스포츠와 그 정황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다른 고대 사회에서와 같이 주로 전쟁과 관계있는 활쏘기, 칼쓰기, 창던지기, 물매던지기 등과 추수나 승전시의 무용이 성행하였다. 기본 종목으로는 수영이 중요하게 교습되고 행해졌다. 신약시대에는 화려했던 그리스의 스포츠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비유로서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육·스포츠가 최소한 부정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안식일과 놀이와 축제를 중심으로 한 성경에서의 여가관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계명으로서의 안식일은 강제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진정한 여가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일과 탐욕에 대한 규제와 하나님이 보

인 만족이라는 측면에서는 심미적이고 관조적인 휴식, 기분전환 그리고 재창조 등의 여가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 여가의 주요 내용이 되는 축하와 축제, 그리고 놀이에 대해서도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긍정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하여 축하와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 축제는 하나님이 만든 일종의 놀이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문화는 그것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체육이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 1,000년간 금욕주의에 의한 암흑시대를 맞기도 하였고, 근대에서도 청교도들을 통해 스포츠 등 여가가 부정된 면도 있었지만, 신체관, 스포츠 그리고 여가관 등을 통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체육에 대한 개념은 현대 체육의 개념과 차이가 없는 심신일원론적이고, 체육·스포츠나 여가에 대해 부정적이 아니라 지극히 긍정적이며 오히려 권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체육학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정한 체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고신석 (2000). “성경에 나타난 안식에 대한 바른 이해.” 석사학위논문 고려신학교.

굿모닝성경편찬위원회편 (2011).『큰 글자 굿모닝성경』. 서울: (주)아가페출판사.

김옥태 (1993). “바울 신체관의 배경과 본질.”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_____ (1997).『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서울: 21세기체육사.

_____ (2002). “기독교 안식일과 여가.”『한국체육철학회지』 제10권 2호. 31-46.

_____ (2009).『체육의 원리와 철학적 탐색』.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김호환 (1992).『철학적 신학적 인간학』.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나영일 (1983). “Martin Luther의 기독교교육 이념에 따른 신체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박윤선 (1978).『창세기 주석』. 서울: 영음사.

박희석 (2002).『안식일과 주일』.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이경우 (1984). “바울의 인간관과 그 구약적 배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이성호 (1989).『성서대사전』. 서울: 혜문사.

이종록 (2000). “성서에 나타난 쉼의 의미.”『교육교회』. No. 282. 2-7.

제자원편① (1991).『그랜드종합주석,1』.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제자원편② (1991).『그랜드종합주석,3』.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제자원편③ (1991).『그랜드종합주석,3』.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제자원편⑤ (1993).『그랜드종합주석,5』.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제자원편⑧ (1993).『그랜드종합주석,5』.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제자원편⑫ (1992).『그랜드종합주석,12』.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제자원편⑮ (1993).『그랜드종합주석,15』.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편집부편 (1989).『철학소사전』. 서울: 종로서적주식회사.

今村嘉雄・宮畑虎彦 (1976).『新修體育大辭典』. 東京: 不昧堂出版.

川村英男 (1963).『體育原理』. 東京: 體育の科學社.

小倉芳彦外2人 (1996).『世界史の新研究』. 東京: 洛陽社.

佐藤敏夫 (1988).『レジャーの神學』. 東京: 新教出版社.

篠田基行 (1973).『體育思想史』. 東京: 逍遙書院.

篠原助市 (1957).『新教育學概論』. 東京: 理想社.

前川峯雄 (1981).『體育原理』. 東京: 大修館書店.

松浪健四郎 (1991).『古代宗教とスポーツ文化』. 東京:ベースボールマガジン社.

Baab, O. J. (1964). *The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박대선 역(1986).『구약성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Castel, F. *The History of Israel and Judah* (1992). 허성군 역.『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Child, B. S. (1976). *The Book of Exodus: A Critical Theological Comment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Cox, H. (1969). *The Peast of Fools: A Theological Essay on Festivity and*

Fantasy. New York: Harper and Row.
Dawn, M. J. (1989). *Keeping the Sabbath Wholly*. Wm. B. Eerdmans Publishing Co.
Eichrodt, W. (1967).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2.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Freeman, W. H. (1987).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in a Changing Society*. N. Y.: Macmillan Publishing Co.
Gradiner, E. N. (1910). *Greek Athletic Sports and Festivals*. London: The Macmillan Co.
Jacob, E. (1958).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ans. Arthurw Heathcote and J. Allcock. N.Y.: Harper & Row. Publisher.
Jokl, E. (1977).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Tokyo: Kodansa.
Lewis, C. S. (1967). *Christian Reflection.*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
Nee, Watchman (1968). *The Spiritual man.* Vol. Ⅲ. N.J.: Christian Fellowship Publishers Inc. 정동섭 역 (1993).『영에 속한 사람③』. 서울: 생명의말씀사.
Pieper, J. (1964).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trans. Alexander Dru. New York: Pantheon Books.
_____ (1973). *In Tune with the World*, trans. R. and C. Winton.
Rappaport, B. S. (1975). "Carnal Knowledge: What the Wisdom of the Body has the Offer Psycheo-therapy." *Humanistic Psychology* Vol. 15, No. 1.
Ryken, L. (1987). *Work and Leisure in Christian Perspective.* Inter-Varsity Press.
Van Dalen, D. B. & Bennett, B. L. (1971). *A World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New Jersy: Prentic-Hall, Inc.
Volf, H. W. (1973).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Chr. Kaiser Verlag. 문희석역(1991).『구약성서의 인간학』. 왜관: 분도출판사.
Williamas, J. F. (1964). *The Principles of Physical Educatio*n.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Zeigler, E. F. (1977).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hilosoph*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1181

ABSTRACT

Physical Education in the Bible

– A Study of the View of the Body, Sports and Leisure –

Ok Tae Kim (Seowon University)

This paper considered the concept of physical education in the Bible. The three topics presented were the view of the human body, sports and the view of leisure through the Bib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view of the body in the Bible, is that we are created by God as spiritual beings both in body and soul. Though the body is weak, we must not neglector the body, but we must manage it responsibily. In the Bible, one can identify similar ideas that are practiced in modern physical education, the Bible shares the same view as modern physical education. Second, in the Old Testament days, archery, fencing, spear and sling were all physical activities related to war, while dance and swimming were related to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In the New Testament days many metaphors are written in Pauline letters, it suggests that sports were not denied but were encouraged and venerated. Third, the Sabbath in the Bible encompasses the meaning of leisure, control of the human's work ethics, greed and God's satisfaction. Festivals are a sort of play God has made. Christians should enjoy celebrations, joy and freedom through worship, However human culture restricts these celebrations. Ultimately, though physical education has been denied in Christianity historically, the true meaning of physical education in the Bible is positive and encouraging message for all to practice and enjoy physical education.

Key Words: the view of the body, mind-body dualism, identity theory, sport(s), the view of leisure, Sabbath, festival, play